

##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을 펴십시오. 이 장은 바울이 세 장에 걸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 결론을 짓는 장입니다. 14장 1절에 바울은 12장과 13장을 종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장은 사랑에 관한 것만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사랑을 따라 구하라** (또는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런데 12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끝맺었습니다. 여기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 두 은사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확실히 더 나은 은사입니다.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the glossa)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은사로, 우리의 지식의 그 좁은 전달 통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과, 하나님의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여 영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부적당함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언어의 결점 또는 우리의 지식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8:26),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경건한 삶을 위한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신령한 또는 아름다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2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들은 모두 그들이 모르는 언어, 즉 glossa로 말했는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오순절 축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듣고 놀라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각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3 그러나(반면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기쁨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때는 저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하여 저들로 확신을 갖게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위로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당신의 언어를 유발시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격려가 되는 경험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저들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에 의해 유발된 언어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저들에게 이러한 교제 안에서 가져다 준 축복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이와 같이 공공 집회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개인의 덕보다는 전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여기 서서 모르는 방언을 말한다면 비록 나는 덕을 세울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의 목적은 한 몸인 전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공 집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은사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있어서 방언의 은사만큼 당신의 기도의 삶을 도와 줄 더 좋은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인 자신의 경건한 생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최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므로 받는 축복들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만약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방언에 동반되는 은사입니다. 그 목적은 만약 방언의 은사가 공공 집회에서 행하여 졌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 방언으로 말하면, 그와 동반되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한 것에 대한 통역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저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기에 통역이 없다면, 그 방언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에게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통역을 통한 통역자가 있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를 사용하여 방언으로 말한다면 너희에게 전혀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을 하거나, 또 너희에게 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행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축복이 되며,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중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항상 몸 전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7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피아노는 어떤 생명도 없지만 건반을 치면 소리를 냅니다. 나팔 또한 생명이 없지만 바르게 불면 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많은 악기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악기들은 그 자체로는 소리를 낼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만약 어떤 노련한 숨씨를 가진 사람이 그 악기를 연주한다면 우리는 그 음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칠 때 우리는 그 음을 알 수가 있지만, 한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건반들을 마구 두드리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소음만을 주지만 이 소음 속에 구별되는 어떤 알 수 있는 음의 형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소음일 뿐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가 통역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리나 거문고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즉, 숨씨있게 연주하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현대 통신 수단으로 쓰고 있는 확성기나 스피커 등이 있기 전에는 군대에서 나팔로 군인들을 지시했습니다. 나팔의 소리가 먼 곳까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다른 나팔 소리를 냈습니다. “다 다 닷 타 다” 소리가 들리면 이것은 돌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적군을 대항하여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팔수가 그냥 불기만 하고 어떤 특정한 음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점심 시간을 알리는 것인지, 취침 시간을 알리는 것인지, 기상 시간을 알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상 나팔이 있었고 군대들을 지시하는 여러 가지 나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팔이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들에게 지시를 실제로 알리는 어떤 특정한 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만일 당신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말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시간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덕이 되겠지만, 다른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10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수 많은 다른 언어들이 있습니다)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언어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리들은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계약 내지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로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는 이 특정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동의 하는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개념들을 영어라는 언어로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소리는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동의 안에서 우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친구와 동의 아래 소리를 만들어, 어떤 특정한 음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한다고 서로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개인용 언어로 짧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우아”란 오늘 밤 교회 집회 후에 커피 한 잔 합시다 라는 뜻이고, “누아”란 좋은 생각이야. 누가 살 건데? 라는 뜻이라고 합시다. 교회 집회 후에 내가 나가서 “우아” 라고 말하고, 당신은 “누아” 라고 말하면서 같이 나간다면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러한 동의를 있다면 우리는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로 협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항상 신기한 것은, 외국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거리에서 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나 일본의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나는 조금은 당황하게 됩니다. 저런 소리로 저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들은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서로 동의하는한 모든 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외국어로 들릴 뿐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모르는 당신이 서로 교통하려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좌절시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의미하는 것에관해 동의하에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좋은 실례입니다. 그들은 서로 교통하지만 당신은 알 수가 없으며, 당신이 말하는 것 또한 저들도 알 수가 없게 되면, 물건을 들고 가리키며 영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교통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로에게 외국인과 같으며 야만인과 같습니다.

**12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관해 말하기를, 그들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말하자면, 그런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방언은 교회 전체를 세워나가는데는 가장 미약합니다.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말은,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방언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도 당신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은 재미있는 문제를 가져다줍니다. 만일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자유로이 행하는 오순절 교회를 방문케 되었다고 합시다. 흔히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뒤따르지 않고, 예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나는 오순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형제들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지만, 통역을 주는 대신에 그들은 방언 후에 예언을 합니다. 방언의 통역인지 예언인지는 매우 쉽게 식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하면서 그들로 찬양토록 권고하고, 신뢰토록 권면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신령한 비밀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통역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무엇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큰 일을 선언하는 것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드리는 통역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서너 구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십시오.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6:11-20)에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한 후에 전투에 들어갈 때,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유다서 (20-21절)에, 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경배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실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지성)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지성에 모욕이 됩니다. 그것은 나의 지성을 비하시킵니다. 이지적으로 방언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나의 지성에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인 것 같이 나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지성에는 모욕적이지만, 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나는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영어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이것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것은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즉,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므로 내가 여기 서서 방언만을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며 화답하겠습니까? 아마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쁜 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또는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대중 가운데 방언의 사용을 격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에서는 종종 방언의 은사의 남용으로 자주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자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의 사용이 더 큰 은사의 사용을 방해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방해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순절 교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요, 그 교파 운동에서 유일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도널드 지(Donald Gee) 목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의 책에서, 여러 가지의 은사와 그것들의 사용을 정의하면서, 방언의 은사의 사용에 대해 말하는 장의 제목을 ‘방언과 방해’ 라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오순절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방언의 은사 그 자체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그릇된 사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언합니다. 왜냐하면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19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일정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지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나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서서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방언으로 한 시간동안 말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 관한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내자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제 바울은 이사야(28:11-12)에서 재미있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21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흥미로운 예언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에 이것을 언급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주된 목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의 불순종과 주님에 대항하는 그들의 반항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적을 붙일 것이며, 그 적들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듣는 것은 방언일 것이며, 그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반항으로 인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점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사야서에서 이 특정한 구절을 인용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절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상 이 다음절은 너무나 어려워 필립스(J.B. Phillips)는 그의 번역본에서 이 구절의 번역을 자유로이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 반대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그가 방금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필립스(J.B. Phillips)는 바울이 실제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번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 볼 원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의 사본의 사본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원본도 남아있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원본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배했을 것이고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팔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서 사진틀에 끼어 집에 모셔 놓고는 지날 때마다 입을 맞추는 등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원본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는, 어떤 이가 초창기 사본들 중에서 하나를 옮겨 쓸 때에 혹시 실수를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베낄 때에 실수가 있었다면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구절은 곧 이어지는 구절에 완전히 상반되는 구절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복사하는 자의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가정 없이는 이것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명서'에, 성경은 그 원본이 신령하며, 전혀 틀림이 없고, 성경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디모데후서 3:16)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초창기 사본을 만들 때에 아마 고린도 서신에서 한 옮기는 자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여유를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복사되었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계속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필립스(J.B. Phillips)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요. 부정어 '않고'를 빼었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거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라. 여기에 번역된 것을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를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을 문맥에 연결시켜 볼 때, 내가 언급한 것같이 다음절은 상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시다시피 문맥이 맞지 않지요? 만일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음 구절에서 그것은 너희를 미쳤다고 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만일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 집회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나는 여기 번역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필립스(J.B. Phillips)의 번역이 문맥의 의미와 맞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환영하며, 이것을 설명하는 학술 논문을 쓴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충분히 만족할만한 것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진심으로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본문에서 의도한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도전을 갖는다면 더 나은 통찰력을 위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본문에 있는대로는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면 나누어주십시오. 논문을 쓰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누어주기를 바랍니다.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온 몸에 덕을 세우려고 하라. 고린도에서의 그들의 예배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기 자기들의 것들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들이나 영적인 현상들을 행하므로서 그들 자신들에게 관심을 끌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 현상들을 관심을 끌기 위한 전시용이나 진열품 같은 것으로 만드실 의도는 없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곳에서 그렇게 관심을 끄는 진열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려고 하십시오!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만일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지침과 규율입니다)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다시 말하자면, 둘이나 세 사람이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서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제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그 이상의 지침)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의 일부를 성령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당신을 뒤로 물러 앉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당신의 조절 아래 있으며,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행하도록 강요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할 때, 자주 예언의 서문을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로 시작합니다. 글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말하면서 영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카톨릭의 카리스마적 그룹에서 예언의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하면서 마리아를 경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종재해 달라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판단의 기준입니까? 이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전체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상반되는 어떤 것을 지금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주된 요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록된 계시와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30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계시가 있어 말하기 시작하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을 한다면 혼잡을 가져올 것입니다.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을 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씩 하나씩 모두 예언하여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안위 받고 격려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바로 이것을 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행하게 강요하셔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기에, 당신이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겐 그의 할머니의 아름다움에 호떡 반한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는 조금 괴짜입니다. 할머니 곁을 돌면서 말하기를 할머니에게 매혹되었기에 제재하는 단추를 찾아야한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혹시 성령이 질서 없게든지 말씀 밖의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한다고 느낄 때 당신을 제재하는 단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일 예배가 대 혼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교회 가운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가장 질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 서신의 앞부분인 고린도 전서(11:5절)에 바울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포로디테의 신전으로부터 온 많은 창녀들의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지 않도록 고린도에서 여자들 베일을 쓰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일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아포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라는 표시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즉시 매춘부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베일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하는 기도나 예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여자들의 절대적인 발언 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초대 교회 당시 유대 교회의 풍습에 한 쪽 벽 있는데는 남자들이 앉고 다른 쪽 벽 있는데는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그 중앙에는 선생님이 서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중에, 가끔 한 여자가 방 맞은편에 있는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여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며 묻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알고 싶으면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당신의 남편에게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것은 은사를 통해서나 또 은사를 행함으로 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줄 알라.** 만일 그가 정말로 신령한 자거나 참 선지자이면 그는 알아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바울이 말하는 것에 반대하는 자를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 그자가 참 선지자이거나 신령한 자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줄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리라.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무지한 자는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런데 바울은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끝맺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도 예언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이 근본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15장을 공부할 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그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몸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영광된 몸은 어떤 모습일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주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러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말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로 명심케 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 더 확실하고 온전히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 우리 주위에 필요한 곳에 당신의 뜻이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